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12/16℃ 목포 9/15℃ 여수 11/14℃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09호 1판 2010년 2월 26일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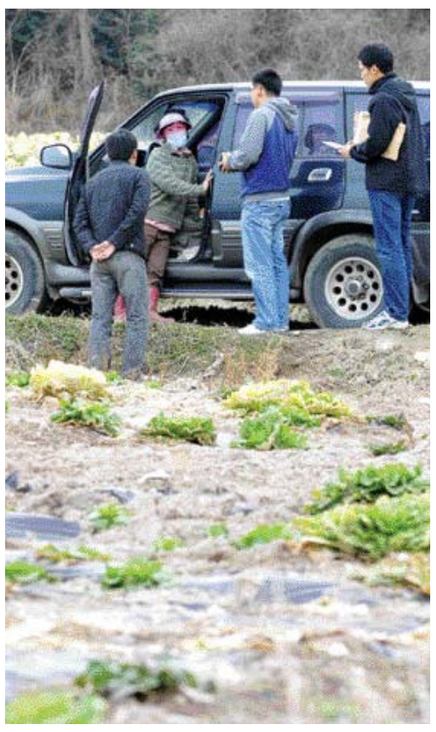
단기 4343년 (음력 1월 13일)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제 2의 창학원년, 출발 2010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르포 - 농협조합장 돈선거 수사 일주일…신안 임자도는 지금

추한 돈에 찢긴 인심…침묵의 섬으로

형사 50여명 마을 뒤지며 증거 수집
떠들썩 하던 대파 수확철 적막강산
"누구는 자수 했다는데 그러면 되나"



경찰이 지난 24일 오후 들일을 나온 임자도 주민을 붙잡고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캐 묻고 있다. /신안 임자도=김진수 기자 jeans@

입은 닫고 눈은 감았다'.

뭍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인 선착장은 한창 수확 중인 대파를 싣고 나온 주민들의 왁자지껄한 입담들로 가득하고 인근 식당에서는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면서 떠들썩할 법도 한데 적막강산이었다. 대신 외지인에 대한 불신과 이웃사촌에 대한 의심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최근 치러진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형사 50여명이 매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온 섬을 뒤지고 있는 신안군 임자도의 모습이다.

24일 찾은 임자도는 '소문과 불신의 섬'이 돼 있었다. "경찰 조사 중에 뇌물로 받은 돈 10만원 내놓고 음독했다더라","심리적 압박을 느껴 조사 과정에서 기절을 했다고 한다"는 확인 안 된 루머가 나돌고 있었다.

대부분 문밖 출입을 끊었고, 간혹 찾아 오는 외지인과의 접촉도 애써 피하고 보자는 눈치가 역력했다.

체육관을 빌려 5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조합장 취임식 행사는 농협 직원 10여명만 참여해 이뤄졌고 매일 수십명이 찾는 농협 창구도 2~3명이 고작이다. 식당을 찾는 손님도 드물었다.

주민들끼리 선거와 돈 얘기를 하는 것은 터부가 된지 오래였다. 조합장 후보들이 10만~50만, 많게는 100만원까지 주며 표를 산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경찰이 전체 임자면 인구 3천691명 가운데 1천93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나같은 늙은 것이 뭘 알겠냐"고 고개를 저었다.

20여가구가 산다는 한 마을 입구에서 만난 주민 나모(70)씨도 "4~5일 전에 경찰도 찾아 왔는데, 해줄 말이 없다,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경찰 수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가구가 경찰 조사 대상이나 다름 아니지만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이름도, 집도 모른다고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임자면 주민들 중 60대~80대(1천147명)가 전체 인구의 31.4%에 이르는데도, 조합원 1천93명 중 1천24명이 투표, 투표율이 93.7%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고령자가 많아 몸을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데는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

'불신'은 이미 주민들을 갈라놓고 있었다. '누구는 10만원 받았고, 누구는 30만원 받았는데 너라고 안 받았겠느냐','누구는 자수했다는데, 같은 동네 살면서 그러면 되겠느냐'는 등 뒷소리가 분분했다.

주민들은 "몇몇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주민 모두가 불량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며 "선거라면 몸서리쳐진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6·2지방선거를 98일 앞둔 임자도의 풍경이다.

/김지을·조완남 기자 dok2000@kwangju.co.kr

임자농협장 출마자 5명 모두 영장 신청

신안군 임자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이 살포된 사건<본보 20일자 3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출마자 5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경찰은 25일 조합장에 당선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뒷돈'을 건넨 신안 임자농협조합장 당선자 박모(64)씨 등 출마자 5명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돈봉투를 건네거나 식사비를 대신 내는 방법으로 250여만원~3천여만원씩 모두 9천500여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조합원 1천93명 가운데 700여명의 집을 찾아가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했다.

이들 조합원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로부터 10만~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차례에 최고 100만원을 받거나 3명 이상의 후보로부터 모두 16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남모(67)씨 등 돈을 받은 조합원과 선거운동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조합원들의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금품수수 여부를 가릴 방침이어서 입건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지난달 29일 5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가운데 치러진 임자농협 조합장 선거는 1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면서 불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알림

새 봄 희망을 달린다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오는 3월1일 광주월드컵 경기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레이스는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나주 남평에 이르는 아름다운 영산강변을 따라 펼쳐집니다. 새봄을 여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 일시 : 2010년 3월1일(월) 08 : 30~16 : 00 (풀코스 출발 09 : 00)
- 장소 : 광주월드컵 경기장 ↔ 남평교
- 문의 :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kjmarathon.co.kr) 전화 (062) 220-0541
- 주최 :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관 : 광주육상경기연맹
- 후원 :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생활체육회
- 협찬

교육 비리 근절 칼 뺐다

장학관·장학사→교감·교장 인사 고리 차단

최근 잇따르는 각종 교원인사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장학관과 장학사, 교장, 교감 간 순환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도 진행된다. 〈관련기사 3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긴급 소집해 교육비리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일단 장학사로 선발되면 좋은 곳의 교감, 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이상한 풍토가 조성돼 많은 사람들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며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교사→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순환인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비리를 차단하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